

01. 고려의 사회 구조와 사회 변화

1. 다원적인 사회의 형성

(1) **고려의 신분제**: ()를 원칙으로 함, 사는 지역에 따라 직업 선택, 세금 납부, 과거 응시 등에 차이
→ 다원적, 복합적

- ① 양인: () (문무 관리, 향리·서리 등), 백정 (일반 농민), 향소·부곡민 등
- ② 천민: 공·사노비 등

(2) 지배층과 피지배층

- ① 지배층
 - ㉠ (): 중앙으로 진출한 문무 관리 중 일부는 문벌 형성 → 정치·경제 권력 장악
 - ㉡ 향리: 지방에서 행정 실무 담당, 속현의 경우 주현 관리들의 지휘 아래 향리가 행정 업무 처리
- ② 피지배층
 - ㉠ (): 주로 농업 종사, 세금 납부, 군역과 요역에 동원, 과거·군공으로 신분 상승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
 - ㉡ 노비: 천인의 대다수를 차지, 공·사노비(소유주), 외거 노비와 솔거 노비(거주지) 등으로 구분, 신분 세습, 매매·상속의 대상, 재산 취급

2. 농민과 천민의 봉기

(1) **배경**: 무신 정변 이후 무신들의 수탈, 농민을 위한 개혁 소홀, 가난한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 등

(2) **주장**: 권력자들의 횡포 비판, 처우 개선 요구, 일부는 고구려·백제·신라의 부흥 주장

(3) 농민과 천민의 봉기

- ① ()의 난: 특수 행정 구역인 공주 명학소에서 과도한 부역과 차별에 저항
- ② ()의 난: 신분 해방을 목표로 노비들을 이끌어 봉기 계획

3. 신분제의 동요

(1) **배경**: 생산력 증대, 사회 구조 변동, 농민 봉기 등

(2) **신분제 변동의 사례**: 특수 행정 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, () 실력자가 권세가로 성장, 왜구와 흉건적 격퇴 과정 중 군공으로 신분 상승, 부를 축적한 노비가 양인이 됨